

지수로 본 세계 성(性)평등

세계경제포럼이 세계 성 격차 지수를 처음 발표한 2006년, 여성은 정치·경제·교육·건강 영역에서 전체적으로 남성의 64% 수준의 대우를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0년이 지난 2015년에는 그 격차가 줄어 여성이 남성의 68% 수준의 대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 남녀 격차는 교육 영역에서 96%, 건강 영역에서 95%로 그리 크지 않은 편이나, 경제 영역과 정치 영역에서는 각각 59%와 23%로 상당히 벌어져 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은 바람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인적자원의 비효율적 활용이라는 결과를 낳아 국가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킨다.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일 2016. 7. 18
발행인 김상호
발행처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층~5층)
정리·편집 라기태 kt@kihasa.re.kr
TEL 044)287-8101
FAX 044)287-8052
www.kihasa.re.kr

성평등

세계 인구의 절반인 여성에 대한 차별은 인권과 사회정의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인적자원의 비효율적 활용이라는 결과를 낳아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저하시킨다. 2014년을 기준으로 헌법에서 양성평등을 보장하는 국가는 143개국에 달하지만, 법률과 정책, 성 편향적 인식, 여성 차별적 사회규범과 관행 등에서의 직·간접적인 성차별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60개국 이상에서 여성은 국적을 취득·변경·유지하거나 외국인 배우자에게 국적을 수여할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임금보다 10%에서 30% 낮다. 29개국의 법률은 남편을 세대주로 규정하면서 남편에게 아내의 권리(일할 권리, 통장 개설의 권리 등)를 제한할 권리를 부여한다. 전 세계적으로 7억 8천 1백만 명의 성인과 1억 2천6백만 명의 청소년이 읽고 쓰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 이 중 60%가 여성이다. 26개국에서 상속법은 여성을 차별한다. 전 세계 여성 3분의 1은 남성 파트너 등으로부터 신체적·성적 폭력을 경험했으며, 아프리카와 중동 29개국에서 1억 3천 3백만 명에 달하는 여성이 여성성기절제를 당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은 21.8%에 불과하다.

UN은 1995년 세계여성행동강령에서 각국에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여성정책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권고했고, '성평등과 여성권한 강화'를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대체할 '지속가능한 목표(SDGs)' 중 하나로 수립했다. 2006년 이래 해마다 '세계 성(性) 격차 보고서(Global Gender Gap Report)'를 발간해 온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지속적·장기적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세계 인적자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개발과 활용이 필수라고 지적한다.

2015년 세계 성 격차 보고서

세계경제포럼은 각국의 성평등 현황에 대한 일관적이고 포괄적인 평가를 위해 2006년 109개국을 대상으로 성 격차 지수를 처음 발표한 뒤 10년이 지난 지난해에는 145개국을 대상으로 한 성 격차 지수를 발표했다. 경제·교육·건강·정치 등 네 주요 영역에서의 남녀 격차를 분석한 뒤 0(불평등)에서 1(평등)에 해당하는 지수 점수를 측정하는 세계경제포럼은 지수 개발에 다음 세 가지 개념을 반영했다.

- 수준 대신 격차
 - 절대적 수준이 아닌 남녀 간의 격차를 평가했다. 예를 들어 특정 선진국 여성의 교육 수준이 저소득 국가 여성의 교육 수준보다 높다 하더라도 선진국의 남녀 교육 수준 격차가 저소득 국가의 남녀 교육 수준 격차보다 크면, 이 선진국은 이 영역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다.

- 투입요소 대신 결과
 - 성평등 정책, 수단 등의 투입요소가 아닌 결과적으로 나타난 실제적 성과만을 평가했다.
- 여성의 권한 강화 수준이 아닌 평등 수준에 초점
 - 여성의 영향력이나 활동 수준이 아니라 남녀 간의 격차에 초점을 두었다. 예를 들어 여성의 경제활동이 남성의 경제활동보다 큰 나라의 점수와 경제활동에서 남녀 간 격차가 없는 나라의 점수에는 차이가 없다.

| 세계 성 격차 지수(Global Gender Gap Index), 145개국

표 1 세계 성 격차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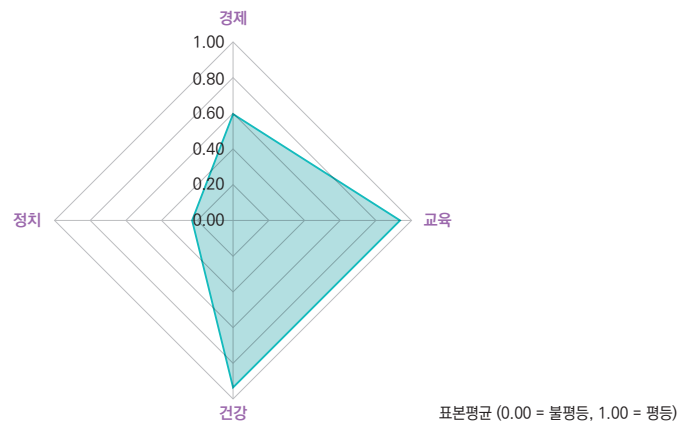
| 부(副)지수(영역) | 변수 | 가중치 |
|------------|----------------------------------|-------|
| 경제활동 참여·기회 | 남성 대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비율 | 0.199 |
| | 동일 업무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임금 평등성 | 0.310 |
| | 남성 대비 여성의 예상근로소득 | 0.221 |
| | 남성 대비 여성의 정치·공·사 조직의 고위 관리직 비율 | 0.149 |
| | 남성 대비 여성의 전문·기술직 종사자 비율 | 0.121 |
| | 소계 | 1 |
| 교육적 성취 | 남성 대비 여성의 비문맹률 | 0.191 |
| | 남성 대비 여성의 초등교육 등록률 | 0.459 |
| | 남성 대비 여성의 중·고등교육 등록률 | 0.230 |
| | 남성 대비 여성의 대학교육 등록률 | 0.121 |
| 소계 | 1 | |
| 건강·생존 | 출생 성비 | 0.693 |
| | 남성 대비 여성의 건강기대수명 | 0.307 |
| | 소계 | 1 |
| 정치적 권한 | 남성 대비 여성의 국회 의석수 비율 | 0.310 |
| | 남성 대비 여성의 장관급 인사 비율 | 0.247 |
| | 남성 대비 여성 국가원수의 통치 연수 비율(지난 50년간) | 0.443 |
| | 소계 | 1 |

경제 영역과 정치 영역에서의 남녀 간 격차는 각각 여성이 남성 수준의 59%와 23%로 상당히 벌어져 있다.

| 세계 성 격차

각 영역에서의 남성의 성과를 100%로 잡았을 때, 건강 영역에서 여성의 성과는 96%로 남녀 격차가 가장 적었고, 그 다음이 교육 영역으로 여기에서는 여성이 남성의 95%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경제 영역과 정치 영역에서의 남녀 간 격차는 각각 여성이 남성 수준의 59%와 23%로 상당히 벌어져 있다(그림 1 참조).

그림 1 2015년 주요 영역별 세계 성 격차



출처: Global Gender Gap Index 2015

성 격차를 완전히 없앤 국가는 없으며, 점수가 가장 높은 북유럽 4개국과 아일랜드는 여성이 남성의 80% 수준에 이를 만큼 비교적 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 반대로 점수가 가장 낮은 예멘은 여성이 남성의 48% 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세계경제포럼이 보고서를 처음 발표한 2006년 성 격차는 여성이 남성의 64% 수준이었으나, 10년이 지난 2015년 68%로 4%포인트만큼 줄었다.

표 2 성 격차지수 및 성불평등지수 상위 10위 국가와 주요 국가의 등수

| 세계성별격차보고서 | | | UNDP 성불평등지수 ¹⁾ | | |
|-----------|-------|-------|---------------------------|-------|-------|
| 순위 | 국가 | 지수 | 순위 | 국가 | 지수 |
| 1 | 아일랜드 | 0.881 | 1 | 슬로베니아 | 0.016 |
| 2 | 노르웨이 | 0.850 | 2 | 스위스 | 0.028 |
| 3 | 핀란드 | 0.850 | 3 | 독일 | 0.041 |
| 4 | 스웨덴 | 0.823 | 4 | 덴마크 | 0.048 |
| 5 | 아일랜드 | 0.807 | 5 | 오스트리아 | 0.053 |
| 6 | 르완다 | 0.794 | 6 | 스웨덴 | 0.055 |
| 7 | 필리핀 | 0.790 | 7 | 네덜란드 | 0.062 |
| 8 | 스위스 | 0.785 | 8 | 벨기에 | 0.063 |
| 9 | 슬로베니아 | 0.784 | 9 | 노르웨이 | 0.067 |
| 10 | 뉴질랜드 | 0.782 | 10 | 이탈리아 | 0.068 |
| 28 | 미국 | 0.740 | 23 | 우리나라 | 0.125 |
| 91 | 중국 | 0.682 | 26 | 일본 | 0.133 |
| 101 | 일본 | 0.670 | 40 | 중국 | 0.191 |
| 115 | 우리나라 | 0.651 | 55 | 미국 | 0.280 |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하는 교육에서의 성 차별 결과 연간 16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활동에서 여성과 남성의 격차를 줄이게 되면 미국 GDP가 9%, 유로 지역 GDP가 13%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여성의 교육과 경제활동

여성에 대한 교육은 지나치게 높은 출산율, 영아·아동사망률, 모성사망률을 낮추는 반면, 경제활동참여율과 소득 수준을 높이며, 아동에 대한 투자를 촉진한다. 따라서 여성이 교육에서 제외되면 생산 잠재력과 개발 가능성이 낮아진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하는 교육에서의 성 차별 결과 연간 16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00여 개 국가에서 이제 여성은 대학 졸업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도의 숙련노동자가 취업 후 일과 가정 사이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몰리게 되는 것은 국가와 기업의 손해이다. 임원의 25%가 여성인 기업이 여성 임원이 전혀 없는 기업에 비해 평균 자본수익률에서 47%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임원의 수와 지속가능성 및 경제성장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경제활동에서 여성과 남성의 격차를 줄이게 되면 미국 GDP가 9%, 유로지역 GDP가 13%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반대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약으로 인한 손실액은 매년 420억 달러에서 470억 달러에 달한다. 세계은행이 실시한 조사 결과 경제적 기회에 있어서 남녀 격차가 큰 중동에서는 성 격차로 인한 손실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여성의 교육·경제활동과 관련한 네 가지 국가 유형

여성의 교육·경제활동과 관련해 국가를 (1) 남녀 간 교육 격차를 줄였으며 여성의 높은 경제활동참여 수준을 보이는 국가, (2) 남녀 간의 교육 격차를 줄였으나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수준이 낮은 국가, (3) 남녀 간의 교육 격차, 경제활동참여 격차가 모두 큰 국가, (4) 남녀 간의 교육 격차는 크나 경제활동참여 격차는 낮은 국가 등 네 그룹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그룹은 여성의 건강과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한 국가로 여성의 교육에 대한 투자를 여성의 경제 및 정치활동 참여라는 수익으로 돌려받는다. 여기에는 북유럽국가, 미국, 필리핀,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가 포함된다. 두 번째 그룹은 여성의 교육에 상당한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근로 참여에 따르는 제약을 제거하지 않은, 혹은 못한 국가로, 인적자본개발에의

투자에 따른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일본, 아랍에미리트, 칠레, 브라질이 속한다. 세 번째와 네 번째 그룹은 여성의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여성의 기본권도 제대로 확립되지 못한 국가들이다. 세 번째 그룹에는 예멘, 파키스탄, 인도 등이 속하며, 네 번째 그룹에는 기니, 차드, 모잠비크, 브룬디 등이 속한다. 네 번째 국가에 속한 여성은 비록 비숙련 노동에 종사하지만 세 번째 그룹의 여성에 비해 소득 수준이 높고 의사결정 권한도 크다. 비숙련 노동으로나마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과 남성의 고용 격차를 줄이면 일본의 GDP가 16%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국가의 여성 정책

생산인구의 감소로 인적자원이 부족한 고령화 사회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경제 활성화의 핵심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이 육아와 근로를 병행하기가 비교적 쉬운 나라에서는 여성의 고용률과 출산율이 모두 높은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은 고령인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미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과 남성의 고용 격차를 줄이면 일본의 GDP가 16%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유리천장지수(Glass-Ceiling Index)

이코노미스트誌는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2013년부터 세계 성 격차 보고서, OECD,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등의 자료를 토대로 OECD 29개국을 대상으로 한 유리천장지수를 발표해 왔다(그림 2 참조). OECD 각국이 일하는 여성에게 얼마나 평등한 국가인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각국의 점수는 10개 지표들의 가중평균으로 계산되는데, 여기에는 고등교육 격차, 경제활동참여, 임금 격차, 여성 고위관리직 비율, 여성 이사 비율, 아동양육비용, 유급모성휴가, 여성의 GMAT²⁾ 시험 응시 비율, 여성 의석수 비율과 2016년부터 추가된 유급부성휴가가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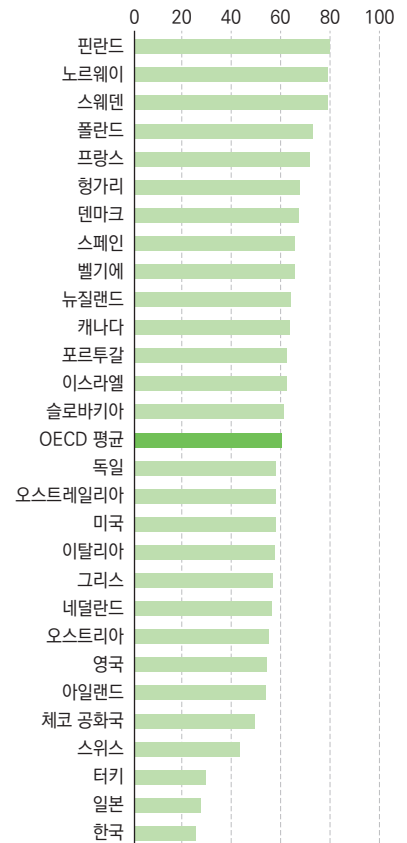
그림 2 유리천장지수

지표 가중치, %



일하는 여성의 평등 지표

2014년 이후, 100 = 만점



출처: The Economist

총점이 가장 낮은 OECD 국가는 터키, 일본, 한국으로 터키와 일본은 각각 여성 경제활동참여율과 여성 의석수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한국의 남녀 간 임금 격차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이 자녀 양육의 책임을 공평하게 분담하지 않는 한 노동 시장에서의 성평등은 요원하다.

유리천장지수에 따르면 일하는 여성이 살기 가장 좋은 나라는 핀란드이며, 그 다음이 북유럽 국가인 노르웨이와 스웨덴이다. 이 국가들은 대부분의 범주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고, 특히 노동시장참여 항목에서 최고의 위치를 차지했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25-64세 여성의 교육과 의석수 비율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노르웨이는 2008년부터 상장회사 이사진의 40%를 여성으로 구성하도록 법에 규제하고 있다. 그 결과 여성 이사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다. 그러나 고위 관리직에 있는 여성 수는 적은 편이다(15등). 이 항목에서는 미국이 여성 고위직 비율 42.7%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총점이 가장 낮은 OECD 국가는 터키, 일본, 한국으로 터키와 일본은 각각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과 여성 의석수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한국의 남녀 간 임금 격차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육아휴가에 관한 한 터키, 일본, 한국이 덴마크, 노르웨이,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보다 점수가 높다. 미국에는 여성의 유급모성휴가에 관한 법적 장치가 없다.

| 부성휴가의 부상

남성이 부성휴가(paternity leave)를 신청하는 곳에서 여성이 노동시장으로 돌아오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고, 남녀 간 소득격차도 낮게 나타났다. OECD 국가의 유급부성휴가 평균 기간은 8주였으며, 미국을 포함한 9개국은 아직 부성휴가 제도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른 지표들에서는 점수가 낮은 일본과 한국이 OECD 국가 중 가장 긴 부성휴가를 제도화 했는데, 두 나라에서 남성은 50주 이상의 유급부성휴가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두 나라에서 부성휴가는 성평등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인구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책으로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2010년 이후 출산으로부터 14개월 이내 1년간의 유급 휴가를 신청하되, 남편과 아내 둘 다 신청하도록 제도를 만들어 가임여성의 경력 단절 기간을 줄이고자 했다. 그러나 사회·문화적인 이유로 실제 신청자 수는 매우 적다.

남성과 여성이 자녀 양육의 책임을 공평하게 분담하지 않는 한 노동시장에서의 성평등은 요원하다. 따라서 부성휴가 또는 남녀 모두가 취할 수 있는 형태의 육아휴가는 성평등을 향한 중요한 한 걸음이 될 수 있다.⁴⁾

출처

-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5*, World Economic Forum, 2015
- "Still a man's world," *The Economist*, Mar 5, 2016

1) 유엔개발계획의 성불평등지수(180개국)는 건강(모성사망비, 청소년 출산율), 권한 강화(여성의 국회 의석수 비율, 여성 중·고등 교육 경험 비율(25세 이상), 노동시장(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에서 성불평등 정도를 구해 지수를 계산한다.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는 성불평등지수의 한계를 이렇게 정하고 있다. (1) 지수값 중 경제활동 영역지표가 제한적이어서 성평등 수준을 충분히 나타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2) 남녀 임금격차, 노동시장 직종격리 및 남녀 간 시간사용, 재산 접근, 가정폭력 등의 영역이 제외되어 있다. (3) 또한 여성특화지표인 모성사망비, 청소년출산율은 그 역수를 취해 지표값을 나타내므로 타 지표에 비해 큰 영향을 주게 된다는 한계점이 있다. 경제적 수준을 내포한 모성사망비는 타 지표에 비해 큰 영향을 주고, 성평등을 판가름하는 데에 큰 의미를 지닌 남녀 임금격차, 가정폭력 등은 평가 지표에서 제외된 유엔개발 계획의 성불평등지수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2) Graduate Management Admission Test로 미국의 시험 출제 기관인 ETS 산하 경영대학원 입학위원회가 주관하는 시험 중 하나이다.

3) Graduate Management Admission Test로 미국의 시험 출제 기관인 ETS 산하 경영대학원 입학위원회가 주관하는 시험 중 하나이다.

4) 그러나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육아휴가(모성 및 부성휴가) 기간이 2년이 넘으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오히려 떨어진다.